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58
----------	-------

발의연월일 : 2023. 2. 7.

발 의 자 : 이형석 · 양향자 · 민형배
박성준 · 송갑석 · 이용빈
조오섭 · 서삼석 · 이성만
윤영덕 · 이학영 · 백혜련
김태년 · 이병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